

‘金보다 감동’ 한복·아리랑 아이스댄스



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프리댄스에서 한국의 민유라와 알렉산더 켈린이 '아리랑'에 맞춰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라는 민유라와 “한국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알렉산더 켈린. ‘대한민국의 민유라-알렉산더 켈린’이 ‘아리랑’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잔잔한 감동을 남겼다.

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프리댄스 경기에서 ‘이방인’이었던 민유라-켈린조는 가장 한국적인 모습으로 링크에 올랐다.

한복 저고리를 변형한 연분홍색 상의와 한복 치마 모양의 진분홍색 하의의 민유라는 긴 머리를 흔들리던 지난 쇼트와 달리 머리를 곱게 묶은 채 등장했다. 켈린은 하늘색 한복 상의와 파란색 바지 차림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어 한국적인 의상의 두 사람은 ‘홀로 아리랑’에 맞춰 한국 무용을 보는 듯한 연기를 펼쳤다. 강렬한 표정으로 은반을 누볐던 쇼트 연기와 달리 두 사람은 애절한 눈빛과 표정 그리고 섬세한 손끝, 발끝으로 아리랑을 표현했다.

두 사람의 연기에 몰입한 관중들은 어려운 리프트와 스핀 동작이 나올 때는 큰 박수를 보내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이 경기장을 지배하면서 4분

**“미국서 태어난 한국인” 민유라
“대한민국이 받아들인” 켈린
한복 입고 아리랑 선율 맞춰
피겨 아이스댄스 프리 연기**

**주변 우려에도 ‘아리랑’ 고집
가장 한국적인 무대로 감동 선사**

여의 시간은 순간처럼 지나갔다.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은 두 사람은 한 손은 든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잔잔히 연기를 마무리했다. 관중석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 속에 두 사람은 꼭 껴안은 채 소원을 이룬 순간의 감동을 누렸다.

‘아리랑’은 두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민유라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음악 ‘아리랑’으로 연기할 피겨스케이팅을 관객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목표다. 목표를 꼭 이뤄서 의미 있는 무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켈린 역시 ‘아리랑’을 말했다.

그는 “꼭 프리 스케이팅에 출전하고 싶다. 한국의 노래 ‘아리랑’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루고 싶다. 평창 올림픽에서 전 세계인과 ‘아리랑’을 함께 느끼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아리랑의 무대를 위해서는 먼저 20위라는 성적이 필요했다. 두 사람은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61.22의 기록으로 16위에 오르며 프리댄스에서 ‘아리랑’을 연기할 기회를 얻었고, 민유라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국적인 의상과 음악으로 가장 한국적인 연기를 펼친 두 사람은 사실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다.

민유라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재미교포이고, 켈린은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국적을 얻은 귀화 선수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역대 최다인 19명의 귀화 선수로 한국대표팀이 구성되면서 ‘진짜 한국 선수’가 아니라는 끊임 없는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특출 튀는 매력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던 민유라와 켈린은 ‘아리랑’을 연기하면서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

다른 나라 심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이라는 주변의 우려에도 ‘아리랑’을 고집했던 두 사람은 한국 아이스댄스 역대 최고인 18위의 성적을 뛰어넘는 감동의 무대를 평창올림픽 역사에 남겼다.

두 사람은 ‘굉장했다’는 말로 감동을 표현했다.

민유라는 “완벽한 연기는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아리랑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올림픽 경기) 끝나서 슬프다. 다시 들어가서 또 하고 싶다.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긴장 안 되고 편하게 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재킷을 벗었을 때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잘 알려진 전통적인 의상과 음악이다.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며 뜨거운 응원을 보낸 준 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켈린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아리랑이 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관중들이 놀라운 응원을 보내주셨다”며 아리랑의 감동을 말했다.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 부모님의 노후자금까지 지원 받아야 했던 켈린은 부모님의 이야기에는 잠시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아리랑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올려 퍼진 세 번째 아리랑이었다.

북한 선수단 입촌식날 북한 취주악단은 ‘반갑습니다’에 이어 ‘아리랑’을 연주하면서 경색되어있던 현장 분위기를 녹였다.

개회식 현장에서는 김남기(81) 정선아리랑 예능 보유자가 정선 아리랑을 세계에 전했다. 아리랑 가락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향하는 강인한 민족성을 표현한 ‘햇목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는 전 세계에 감동을 줬다.

그리고 민유라와 켈린은 운명으로 ‘홀로 아리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진한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